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완전복음, 완전사랑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전서-

잠언 25:21-22, 고린도전서 13:13

정윤돈 목사님

* **잠25:21-22**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 리하는 것은 띤 솜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아 이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 **고전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과 찬양과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불가한 영적 유산의 문제와 질병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들어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고통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의 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절대이유와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절대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많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취의 언약의 말씀인 레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도전하고 성취하여, 그 성취된 말씀의 증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최근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 선교사님들을 뵈고 포럼을 나누며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번 일정과 홍콩집회 이전부터 하나님께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달라고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했다. 진정한 성령인도는 완벽하게 받는 것인데, 내 시간 스케줄, 부모, 자녀, 문제, 교회, 그리고 선교현장의 만남 등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밀히 인도받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맡기고 세밀하게 인도받을 때, 그 여정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은혜롭다. 식당 하나를 찾는 것조차 성령의 강도를 따라 램프들을 통해 인도받는 체험을 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김선일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선교사님들 이미 참사랑교회에서 진행한 강남노도 전도캠프메시지를 듣고 인도를 받고 계셨음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랐고 감사했다. 구마모토의 김선일 선교사님 부부의 사연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김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불신자 가정출신으로 박종혁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교 배경의 엄격한 집안 분위기와 남편 될 김선일 선교사님의 선교사님의 직분에 대한 거론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혼식 당일 부산으로 도망쳐버렸다고 한다. 일주일 뒤 돌아오는 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정죄하고 꾸짖는 대신 그녀를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었다. 늘 윤법적이고 도법적으로만 살아왔던 그녀는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완전복음'과 '완전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어설프게 사모가 되었다면 평생 고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녀의 윤법적 틀을 완전히 박살내고 참된 복음적인 사모로 세우시는 완벽한 섭리를 이루신 것이다. 이번 선교현장에 가면서 준비한 메시지 제목이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완전복음, 완전사랑'이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하물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성도 간의 문제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보인다. '어떻게 결혼식 당일엔 신부가 도망쳐 사라질 수 있는가'라며 푸질 푸질 소곤거릴지라도 알아듣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해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신앙에 빠져 불평불만하고 남을 탓하거나 내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교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모습을 통해 오는 선포일 이 강단메시지가 현장에서 미리 성취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다. 또한 히로시마의 시의원인 미즈노 의원의 만남도 있었다. 그는 팔로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나 4년 만에 1등으로 재선될 만큼 지역의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겸손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를 보며, 장차 시장을 넘어 국회의원으로 동경에 진출할 훌륭한 서민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사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찬양축제 할 것을 소동하였다. 그래서 이후 함께 기쁨을 기약하게 되었다. 히로시마에서 그 의원의 배려를 통한다면 그래서 히로시마 현장에서 램프들과 함께 K-pop과 찬양퍼스킹을 하며 복음을 전할 문화 사역의 길도 순조롭게 열리게 될 것 같다. 현장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미 끝까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을 깨달았다. 내가 역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중심만 바르게 세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나도 이와 같아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신앙에 빠지며,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고민하는 것은 모두 기도하지 않고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점수는 과연 몇 점이었는가. 한국 양국은 세계 최고수준이라서 적당한 점수로 가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양국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는 과거에 금메달을 땀은 세계 1위였던 인맥이 있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합을 치러 한두 번의 실수만으로도 탈락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복음의 바사가 되고 영적인 국가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237개 나라와 참사랑교회를 살리며, 로마서 16장의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인지 끝까지 시험하신다. 이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국가대표요, 박사인지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시험을 통과하여 복음의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도와 직분자, 그리고 램프들에게 주신 복음의 영적 상태가 몇 점이었는지 물어보던 점수가 한 점도 없었나? 기도생활은 몇 점이었나, 말씀묵상은 몇 점이었으며, 전도는 몇 점이었나? 새부족으로 물어볼수록 대부분 30점, 40점에 머문다. 과거 대학사역원에서 점검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학에서 60점 이하는 낙제인 'F'학이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누구나 진급하지만, 영적인 박사가 되어 세계를 살리려면 이처럼 영적으로 계속 'F'학점을 받아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대학에서 석사, 박사, 교수로 나아

가려면 'All A'를 받아야 하듯,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래야 한다. 세상적인 다른 조건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지금 결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세상의 학벌, 성직, 배경, 혹은 신앙의 연륜 등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서밋이 되면, 학업과 먹고 사는 것을 비롯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공부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강단말씀에 집중으로 집중하여 결국 'A+'를 받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았다.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학업에 진전이 없는 것은 강단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설교시간이 가장 졸리고 재미없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램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강단메시지의 주제와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끝까지 집중하며 말씀을 붙잡는다면, 학업성적도 결코 나쁠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영적 집중을 해내는 자가 학업에 뒤처질 리 없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반드시 삶과 성직에서도 승리한다.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바란다.

히로시마에서 관광회사보다 심 선교사님 현장을 가게 되었다. 히로시마 거리에서는 노숙자이자 야쿠자 출신인 나카이도 상과 호텔 상을 만났다. 이들은 과거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준 자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살하려 했을 만큼 상처와 증오가 깊었다. 어찌저저 히로시마로 오게 되어 심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여전히 상처가 커서 자신을 도와준 분에게마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인도였음을 깨닫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얘기를 하였다. 이분이 매번 자기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이처럼 모든 것을 얘기한 것이 처음이었고 심 선교사님도 놀라며 얘기하였다.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앞으로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하였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부름만 다 오시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선교는 15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팀을 짜서 인도받읍시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다. 성도님들께서 모델적인 선교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출국하기 전부터 온전히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 계속 기도하며 세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 포럼을 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기도 중에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을 꼭 만나야겠구나'하는 강동을 받았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연락하여 선교현장을 전달하고 싶으니 히로시마 참사랑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도 모시고 오라고 부탁했다. 나눌 포럼의 내용도 많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 그 세 분의 선교사님은 옛 그제 결성된 모임이 아니라 무려 5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탑'이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매일 아침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만남의 과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였음을 확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종혁 선교사님의 자녀가 아홉 명인데 모두 훌륭하게 잘 자랐다. 아홉 명의 아이기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현재 도쿄의 모국대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막내는 내가 선교사님의 여덟째 자녀를 보았을 때 태어나서, 아홉째를 낳았다는 소식도 듣지 못해 근황이 무척 궁금했다. 막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이 학교에 있는 '라살(La Salle)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이 학교는 전분으로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명문 고등학교로,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고등학교 중에서도 AI나 의학 분야만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곳에 합격하여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아홉 명의 자녀를 키워낸 가족들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구마모토에서 의대와 관련 학문으로 매우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엘리트였다. 박사학위를 마친 후 일본신학교를 다녔고, 다시 참된 복음을 깨닫고 한국까지 오가며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 막대한 돈과 시간, 그리고 아홉 명이나 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벅하고 힘든 일이었겠는가.

서론

박종혁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평계요 거저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경제적인 궁핍, 척박한 선교의 어려움, 가정과 자녀양육의 모든 곤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고백하셨다. 반대로 말하면, 오직 예수가 되고 완전복음으로 결론이 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도 아닌 사소한 것들을 문제 삼으며, 정작 집중해야 할 전도와 제자양육, 복음전파는 놓치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를 외치더라도, 정작 주님께 내는 것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통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바로 오늘 고린도교회의 문제이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며 오직 예수를 외쳤던 교회였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이 곁에 없게 되자, 그 안에 별의별 문제가 다시 불어닥쳐 나왔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몰라도 정작 각자의 불평불만, 성도 간의 갈등, 타락의 문제 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바울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종수수 이긴 하지만 과녁을 쏠 때마다 7점, 8점, 6점을 맞고 어쩌다 가끔 9점, 10점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런 상태로는 복음의 국가대표가 될 수 없고, 참된 램프들을 양육할 제자의 축복도 누릴 수 없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진정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램프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300%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맡겼더라면 평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인도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중(마25:26)의 모습일 뿐이다.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오히려 300% 더 집중해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질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묻거나, 내 육신에 듣기 좋은 말만 취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씀은 버린다면 그것을 결코 온전한 성령의 인도라고 할 수 없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막18:8)고 말씀하셨다. 역사를 보면 다 니엘, 요셉,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이야기하지만 각 시대마다 참된 남은 자는 아주 소수였다. 여러분은 완전복음과 완전한 성령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시대의 영적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지속할 때 비로소 사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자책문제, 부부 문제, 교회의 문제 등 어려움과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은 큰 축복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학위가 석사, 박사로 올라갈수록 풀어야 할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그 모든 완벽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염려나 문제 속에서도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뻐하는 것이다. 무조건 예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세상에는 가족 간의 스트로크, 형제나 친구 간의 펠로우, 남녀 간의 에로스 같은 사랑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조건 없이 인위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를 의미한다. 나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원수가 주리거든 먹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롬12:20)고 명한다. 그렇게 선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그도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솜 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에게 원수국가와 같아서 이웃이지만 쉽게 사랑하기 힘든 존재이다. 히로시마의 시의원과 평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생겼다. 일본은 전 세계에 평화를 주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원자폭탄을 맞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며 평화를 말한 다. 그렇기에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의원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잘못된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빼앗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들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통치자와 권세들(정사와 권세)'을 상대하는 것(엡6:12)이라고 했다. 사탄이 바로 그 지도자

들과 정사와 권세 위에 역사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주니 시의원의 얼굴이 굳어지며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은 눈빛을 보였다. 다음 번에도 기회가 되면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주려 한다. 세상의 훌륭한 엘리토들 거리의 노숙자도 이 거대한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조금 전 장로님께서는 어떤 분의 가족이 6월 9일 생일날 내담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도를 부탁하셨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완전히 결박될 줄 믿는다. 성도님들께서도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세상의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완전복음과 완전사랑을 전하여 내담자를 막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을 가진 우리뿐이다. 우리는 그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위치에 있다. 겐보기엔 훌륭한 국회의원이나 엘리토들도 다 미래가 불안하여 잠을 지러 다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우리 자신의 영적 신분을 기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은 아침, 저녁으로 '구원의 길'을 묵상하며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상에 갇혀 내가 바쁘면 "여기 우리 장로님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실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언제든 말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신다. 우리 램넌트들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평소매 매일, 매순간, 법에서 구원의 길과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준비하여 언제 갑자기 기회가 오더라도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전1:18, 뵤전3:15).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만 십자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전1:20-21).

1. 고린도전서의 양은 문제들과 사도 바울의 답변

1) 편양을 나누어 분쟁하는 문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정작 고린도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목사님 탓으로 돌리고, 성도들끼리 편을 갈라 달을 짓는 등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베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며 파당을 나누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였고,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부목사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이런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교리를 중심에 두고 갈라져 싸웠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단호히 꾸짖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다. 사람들이 사상으로 편을 가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완전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거짓말과 분열의 영에 속게 된다. 박종혁 선교사님이 아홉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똑똑한 머리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수없이 인본주의를 쓰고 갈등하며 불평불만을 많이 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식과 기준으로 보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세계랴넌트대회나 집회는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가?", "왜 사역에 발전이 없는가?"라며 끊임없이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불평을 지니고 나서 깊이 깨달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오직 예수'로 결론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비판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온전한 영적 상태가 갖추어지면 나머지 모든 삶의 부분은 저절로 풀리고 되어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를 축원한다.

2)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지식적 교만의 문제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 지식적 교만의 문제가 있었다. 화려한 그리스도마 철학에 비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 이야기이자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뵤3:8)"고 고백했다. 로마의 막강한 권력이나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가지고도 귀신들려 내담자를 받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매일 다두고 세우는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 수도 없다. 온갖 정신병과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음란과 게으름, 스마트폰중독에 빠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세상의 지식이나 교육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만한 세상의 최고엘리트 서밋들조차 자신의 권력과 표를 얻기 위해 은밀하게 짐을 치러 다닌다.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계약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만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굳게 믿는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깨닫고 보니 세상의 학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과학, 철학, 수학, 정치, 그리고 정치인도 교수도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에 비하면, 그 모든 세상지식은 배설물과 쓰레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고백한 것이다(뵤3:8). 여러분은 이 고백을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 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이런 강단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작게 3장의 근본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영적인 축복과 성령의 세밀한 인도 역시 결코 받을 수 없다. 마귀가 가장 교묘하게 가로막는 것이 바로 강단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는 말씀에 다 아는 것 같고, 바로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강단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양을 주어 대항했던 사람들도 결코 열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까지 결단할 만큼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화평과 참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깊은 영적인 문제이며, 아직 '완전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여러분이 진작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는 진작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복음,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300%의 영적 전문성을 갖추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3)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성도들이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교회가 세상법정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을 심하게 꾸짖었다. 바울은 "너희 안에 화평하게 하고 중재할 만한 자를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고전6:5)"고 탄식했다. 과거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우리 목회자들이 부추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사과했더니 더 이상 아무런 문제까지 없었다. 싸움과 분열의 영은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며 파괴하려 한다. 그것은 사탄에게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화평을 이루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5:9)"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축복을 놓치기 싫다면 결코 법정싸움이나 다툼을 하지 말고 교회로 가까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양보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신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 작은 일에도 쉽게 다투고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른다. 우리 안에 완전한 복음이 없으면 이처럼 혼돈과 흑암 속에서 잘못된 선택과 다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와 말씀묵상으로 우리 영혼을 은혜로 채워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4) 잘못된 율법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한 문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타락을 상징할 만큼 그곳의 문화는 음란했다. 교회 안에는 심지어 게모(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끔찍한 율행이 일어났다(고전5:1). 또한 신전의 창기들과 어울리는 자들도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니 타락과 중독에 내어주지 말고, 예배와 봉사, 선한 일에 사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5) 지나친 금욕주의의 문제 반대로 율행에 대한 반발로 결혼조차 금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문제였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고 말씀했다. 결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을 정죄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된다(고전10:31).

6)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에게 제사지낸 음식을 먹는 문제로 초신자들이 시험에 들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러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성령충만하고 성령인도를 받으면 내가 나의 감정, 인정, 칭찬,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면에 만만 십주환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 큰 감동을 받았다. 이들은 복음 안에서 지역사회와 깊은 신뢰를 얻으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아름답게 발하고 계셨다. 과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본에 3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언약이 지금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바로 세밀하게 응답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최근 서일본지역 목회자모임의 일원인 한 복음적인 일본인 목사님께서 노회장사로 참사당교회 원로목사님인 최정훈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 생각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옳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앞서서 선불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불평불만과 불신앙의 입을 닫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7) 은사의 무질서 문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등 영적 은사에 대한 질서문제를 다룬다. 당시 성도들은 서로 자신이 받은 방언이나 예언 있는 것이 더 우월한가를 두고 다투었다. "나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니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나는 예언을 하니 더 뛰어나다"며 교만하게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이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값없이 주신 선물을 도리어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교만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2. 완전복음과 완전사랑에 대한 성경구절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가 현장에서 굳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었다.

1) 원수간의 언약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 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단순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연합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이든 가정이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이다. 그럴 때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뜻이겠지"하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소서"라는 온전한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마26:39)"라고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

2) 십자가의 도와 전도의 미련한 것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하여 내 뜻과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남은 틀렸다고 주장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선언한다. 어리석음, 악함, 폭력성,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인간의 내면을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척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영단을 거쳐 결국 "오직 예수"라는 진실한 신앙고백에 이르게 하는 전도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전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길 바란다.

3) 섬기는 자세와 땀땀신앙 그리스도인은 항상 타인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타인의 잘못을 끌어오거나 자신을 기가이 다투며 수용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안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축광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넉넉히 복을 수 있는 것이다. 장로교 신앙의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루터, 칼빈의 가르침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오직 은혜'이다. 이 온전한 복음을 믿고 누리는 영혼이 진작 영적인 '땀땀'이다. 진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 자신이 먼저 훈련을 통해 복음의 땀땀이 되고, 또 다른 땀땀제자를 길러 내는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4) 다양한 사람에게 맞추는 영적인 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 수준과 성향에 맞출 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맞추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바울의 고백을 전해주었다. 타인의 언약학을 닦아가는 나의 영적 우월함을 자랑하는 대신, 믿음이 약한 자의 눈높이에 기가이 맞추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갈라서가 아니라 오직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영적 힘이다. 반대로 복음이 없는 열심은 '집중'이 아니라 중독인 '집착'에 불과하다. 집착에 빠진 열심은 참된 평안이 없으며 결국 한계에 부딪혀 결국 무너지고 만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맹목적인 열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

5) 영적 서밋을 향한 절제와 담음질 그리스도인은 영적 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응답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은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자라하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한다. 당시 고린도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 비유한 것으로,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해 혹독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평계로 전도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방관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중의 변명에도 불과하다. 진정으로 300%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제자를 양육할까?', "우리 현장과 기가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까?"를 치열하게 묻고 실천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 밤낮없이 야근분투하는데, 하물며 237개 나라와 5천 종 족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적 담음질을 쉬어서야 되겠는가.

6)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도 귀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장에서 이 완전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참된 제자로 세우는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명심하고, 끝까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완전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완전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우리 참사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종교도 지워할 수 없는 영적 상처, 귀신과 마귀에게 시달리며 끌려 다니는 자들의 고통, 그리고 불가늠해 보이는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